

2016 세계청년축제 청년히어로 노립영형

28~30일 문화전당 일원

# 즐길 줄 아는 당신이 히어로!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이 인생의 전부인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혹한 현실이다. 누구나 마음 속 '영웅'을 꿈꾸지만 현실은 도서관, 취업학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2016 세계청년축제'가 오는 28~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 문화행사 일환으로 처음 열린 청년축제는 올해 '청년은 히어로다'를 주제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제는 크게 ▲즐겁다면, ▲함께하면, ▲느낀다면, ▲꿈꾼다면, ▲배운다면, ▲너도나도 누구나 히어로 등 6개 마당으로 꾸며진다.

'즐겁다면, 누구나 히어로'는 공연프로그램이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28일 개막식이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27개국 청년 350명이 참여해 27개국 언어로 외치는 청년선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 힙합가수 비와이(BewhY)가 축하공연에 나서 광주 팬들을 만난다. 최근 Mnet 힙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우승한 비와이는 날카로운 가사와 속사포랩을 구사하는 떠오르는 신예 래퍼다.

또 '쇼미더머니5' 결승에서 우승을 놓고 겨뤘던 씨잼(C Jamm)도 출연한다. 고등학교 동창인 비와이와 씨잼은 뛰어난 실력과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훈훈

한 우정을 보여주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다빈, 리움, 청년축제학교 출신 'd.o.t culture'가 무대에 올라 여름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개막행사 전에는 세계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비빔밥 파티'도 열린다.

29일 오후 7시에는 디지털 파티가 열리고 30일 오후 7시에는 하동호 패션디자이너가 강연자로 나선다. 캐주얼 브랜드 '소잉 바운더리스(Sewing boundaries)' 디자이너 겸 대표를 맡고 있는 하동호씨는 주제 '꿈꿔라 청년히어로'에 대해 들려준다. 루버스틱, SOOF밴드 등 지역 뮤지션들은 흥겨운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함께 영화를 보며 감성에 젖는 시간도 마련한다. '느낀다면' 행사는 전당 잔디극장에서 28·29일 밤 10시부터 영화 '싱 스트리트'를 상영한다.

또한 '꿈꾼다면' 행사에서는 28·29일 오후 5시부터 도시 속 캠프를 즐길 수 있고 보드게임대회 광주골든벨,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그밖에 '함께하면' 행사는 길거리음식, 푸드트럭, 플라마켓으로 구성되고, '배운다면'은 5분만에 배우는 머리뿔기, 드러머되기, 손글씨 등 교육을 진행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년버스'도 찾아와 고민을 상담해주고 대구 청년위원회가 참여하는 청년 달빛동맹행사도 이어진다. 문의 062-227-8781. /김용희기자 kimyh@



비와이



## 광주-말레이시아, 문화융합 공예상품 개발

4개팀 협업...다음달 22일 디자인센터·9월 빛고을핸드메이드 페어서 발표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박유복)가 말레이시아 디자인카운슬과 공동으로 '아시아 문화기반 수공예 상품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문화를 융합한 스토리텔링 문화상품을 개발, 상용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 양국에서 각각 4명씩 8명을 선발, 1:1 매칭을 통해 4개 팀으로 꾸려 지난 18일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갔다. 8월13일까지 광주와 쿠알라룸푸르에서 각각 2개팀씩 운영된다.

광주에서는 '무등수목화'로 최근 이탈리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 수상한 김보형 '보&봉 공방' 대표와 싱가포르 국제가구디자인 어워드(FDA 2016)에서 두각을 나타낸 SIM CHIA YI(여·28) 작

가가 팀을 이뤘다. 또 김상훈 '감성나무 STUDIO 뿌리' 대표와 말레이시아 신진 가구 디자이너 팀20에 선정된 Sujak Hasbollah가 팀을 이뤄 목공예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광주 김지은 'Z-EUN공방' 대표와 Mohd Nizam Najmuddin이, 박혜수 작가와 Saharudin Busri가 각각 금속공예와 목공예 상품을 개발한다.

양국에서 개발된 상품은 8월22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워크숍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출원 후 국내 결과물은 9월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에서, 해외는 홍콩 메가쇼(세계 최대 생활용품 박람회)에서 선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28일 5·18민주광장서 개막식...27개국 350명 참여 '쇼미더머니5' 우승 비와이 공연·강연·푸드마켓 등 다채



▶지난해 열린 세계청년축제 폐막공연에 가수 싸이(PSY)가 출연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가야금이 들려주는 민요 이야기

광주가야금연주단 오늘 오후 7시 문예회관 소극장



이정숙

하선영

광주가야금연주단(단장 이정숙) 제30회 정기연주회 '가야금으로 들려주는 민요 이야기'가 2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이수자인 성애순(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씨를 중심으로 1989년 창단했으며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아리랑 놀이 4중주', '황금산의 백도라지 3중주', '오봉산 타령 3중주', '강강술래 변주곡', 25현 가야금협주곡 '육자배기', 아리랑변주곡 '아리랑·밀양 아리랑', '25현 가야금을 위한 옛노래 2중주' 등이다.

조선옥·하선영·김성이·김한아·김정실·이보미·박지인·이선미·강지혜·김아람·이승은·김미정·김아영씨가 출연한다. 또 타악 주자 허동관(나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씨와 가야금병창단 '현의 노래' 단원인 이우빈씨 등이 함께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